

至孝

不淫

好義

壹切

不欺

感應篇





太上感應篇序

古昔聖賢之教具詳於六經四子書如大學言誠意中庸
言慎獨孟子言修身立命而柱之夭壽不貳凡欲學者為
善去惡盡其在而我而一切禍福死生榮辱得喪悉以聽之
於天而已不與此董子所云正其諛不謀其利明其道不
計其功濼有得於聖賢立教之微旨而非後世之有所慕
而始為善有所畏而始不為惡者所可及也然而易言餘
慶餘殃書稱降殃降祥卽宋儒亦有修吉恃凶之說則夫
福善禍淫天人感應必然之理固有歷歷不爽者而本此
以爲教俾中人以下皆得有所感發德創以不昧於趨避
之路比太上感應篇一書未始非易書之遺意而與聖賢
覺世之心相爲發明者也京兆太守高君幼卽持誦是篇

朝夕不輟者殆三十稔自筮仕以至治郡皆身體而力行之乃猶慮人之不盡遵也爰譯以國書續以漢文繪以圖像使展卷昭然可以家諭而戶曉長安爲省會要區政事繁劇高君因土俗順人情凡所爲導民而趨於善者無不詳且至今公事之暇復手校是篇捐貲刊布俾誦之者曉然於福善禍淫之理歷歷不爽如此將見感發懲創人人知善之當爲惡之當去是足以助宣聖朝之德化而以揆諸古聖賢立教覺民之心亦無不有合焉矣余故於茲刻爲之濃嘉而樂道之

賜進士及第翰林院修撰加三級奉勅提督陝西通省學政錫山王雲錦拜手題

序

世有善惡兩途如冰炭之不相侔也人皆曰此其天性使然而不知良知良能盡人皆具乃自私欲蔽而天良畧遂覺善日泯而惡日彰所謂性相近也習相遠也苟有以啓迪之愷揚之欣動之則沮沒之良油然具在世之人每以王法可逃昧心莫識且有恃勢橫行不畏國典因而肆無忌憚如是者流若與其講道學論理法則不啻浮雲之過目也孰知冥冥中自有主司登記所犯過惡大則奪算小則降灾威極而侈者多得絕滅報所謂惡不極不足以殺身近報則在自己遠報則在子孫觀之太上感應篇其中所載俱歷歷可考非荒唐無據者化是則感應篇一書實足以啓人之良能而懲人之逸志人有不畏法紀者寧有

不畏報應者乎故王政之外足以佐其教化之未逮者莫
太上感應篇若矣刊施者甚眾信奉者亦不少然而欲求
滿漢兼備者未可多得茲皖江臬憲朱老大人好善樂施
濟渡心切自刊漢文圖說之外今復兼滿書者一部又為
之翻刻予叨屬吏好善同情故不禁歡忻鼓舞而共勸其
事書成掩卷而嘆曰願世之觀是書者反躬自省善則從
之惡則改之庶無負太上垂示之心而亦自求多福之道
也予不禁拭目望之矣謹序

遼海佟賦偉青士氏謹題

太上感應篇圖說序

從來天道好善而惡惡福善而禍淫故曰積善之家必
餘慶積不善之家必餘殃又曰要知前世因今生受者
是要知來世因今生作者是可知今生之富與貴皆前生
積善所致今生之貧且賤亦前生積惡而然倘若言奸行
僻利己妨人刻薄殘害則今之富貴者來生必致貧賤况
貧賤者乎苟能積善行仁溥施方復救濟羣生則今之貧
賤者來生必致富貴况富貴者乎且有不必要諸來生而
今世現報者亦甚多也所謂善惡到頭終有報只爭來早
與來遲奈何世人祇任一時之貪嗔不顧日後之報應豈
知人生若夢為日幾何生時不善死後徒悲所謂萬般將
不去惟有孽隨身太上憫人之迷而不悟故作感應篇以

警之欲人之遷善改過也予敬奉此篇歷有年所前作郡
時卽照許鶴沙先生繪畫圖說捐俸刊施厥後量移白下
及今觀察皖江陸續刷佈已萬餘部矣茲復得京兆太守
高君所遺感應圖說一帙滿漢兼釋裨益良深盥誦之餘
又不覺播傳心切亦曰善不厭多樂此勿倦耳正將翻刻
間而寧郡太守佟君好善同情卽投良劑剞登之梨棗共
揚仁風斯知善有善報惡有惡報上帝鑒觀鬼神照察卽
或脫得陽羅斷難逃于陰網試看篇中所載曾見放過誰
來幸惟覽者莫不敬且信焉庶善者益臻于善而否者亦
可速改自新所謂苦海無邊回頭是岸人胡弗勉而行之
倘有翻刻此書再爲廣佈吾知天必祐之子孫顯之功德
無量矣是爲序

三韓朱作鼎瞿堂氏謹識

重刻感應篇圖說序

古云天視自我民視天聽自我民聽又曰目司視耳司聽夫天之視聽待乎民民之視聽待乎目耳而目耳猶不能自爲視聽必有待乎形聲而已則形因需目聲因需耳矣然而形或止於無形聲或止於無聲則目耳亦有時窮矣是徒知以形知形以聲知聲之爲易晚而殊不知以影而知形以響而知聲之視聽之爲親切而目耳之爲變不窮也試看此邊之影響卽彼邊之形聲猶之今日之應是前日之感摠之一理無有或爽是其名篇者耶此篇之由舊序備矣惟是吾邦之刊布尚此寥寥寔爲吾人之所同恨也是以前在戊申歲以所得本篇正文登刻今又得善惡所報圖說滿漢字一部若干卷并付棗梨其圖像與漢字

依本秩翻寫滿字則改以東諺以滿字之吾東所不解而
俚語之爲婦孺之所同知也於是人人可得以寓目瞭然
而不勞於學士大夫之註釋指教而上可以助化濟物下
可以利己救人願我同志厚自造福如哻者之望秋惟其
播種如飢者之求飽惟其進食欲秋而不種欲飽而不食
吾知其難矣哉然而種之有道食亦有術種之嘉穀嘉穀
生焉種之稂莠稂莠成焉是惟自我所種食之甘旨則滋
養宜之食之醜毒則死亡隨之是亦惟我所食古往今來
未或不然而人亦未嘗僥倖於萬一而稂莠之醜毒之也
何獨於善善惡惡而曰無庸乎曰僥倖乎豈願同人護以
理無二致行之一切則庶乎其可也已

舊刻戊申歲後四年壬子藻城崔瑛煥星五甫謹書

太上感應篇

太上曰禍福無門唯人自召善惡之報如影隨形是以天地有司過之神依人所犯輕重以奪人算算減則貧耗多逢憂患人皆惡之刑禍隨之吉慶避之惡星災之算盡則死又有三台北斗神君在人頭上錄人罪惡奪其紀算又有三尸神在人身中每到庚申日輒上詣天曹言人罪過月晦之日竈神亦然凡人有過大則奪紀小則奪算其過大小有數百事欲求長生者先須避之是道則進非道

則退不履邪徑不欺暗室積德累功慈心於
物忠孝友悌正己化人矜孤恤寡敬老懷幼
昆蟲草木猶不可傷宥憫人之凶樂人之善
濟人之急救人之危見人之得如己之得見
人之失如己之失不彰人短不銜己長過惡
揚善推多取少受辱不怨受寵若驚施恩不
求報與人不追悔所謂善人人皆敬之天道
祐之福祿隨之衆邪遠之神靈衛之所作必
成神僊可冀欲求天僊者當立一千三百善
欲求地僊者當立三百善苟或非義而動背

理而行以惡爲能忍作殘害陰賊良善暗侮
君親慢其先生叛其所事誑諸無識誣諸同
學虛誣詐僞攻訐宗親剛強不仁狠戾自用
是非不當向背乖空虐下取功諂上希旨受
恩不感念怨不休輕蔑天民擾亂國政賞及
非義刑及無辜殺人取財傾人取位誅降戮
服貶正排賢凌孤逼寡棄法受賂以直爲曲
以曲爲直入輕爲重見殺加怒知過不改知
善不爲自罪引他壅塞方術訕謗聖賢侵凌
道德射飛逐走發蟄驚棲填穴覆巢傷胎破

卵願人有失毀人成功危人自安滅人自益
以惡易好以私廢公竊人之能蔽人之善形
人之醜訐人之私耗人貨財離人骨肉侵人
所愛助人爲非逞志作威辱人求勝敗人苗
稼破人婚姻苟富而驕苟免無恥認恩推過
嫁禍賣惡沽買虛譽包貯險心挫人所長護
己所短乘威迫脅縱暴殺傷無故剪裁非禮
烹宰散棄五穀勞擾衆生破人之家取其財
寶凌水放火以害民居紊亂規模以敗人功
損人器物以窮人用見他榮貴願他流賤見

他富有願他破散見他色美起心私之負他
貨財願他身死干求不遂便生呪恨見他失
便便說他過見他體象不具而笑之見他才
能可稱而抑之埋盡厭人用藥殺樹恚怒師
傅抵觸父兄強取強求好侵好奪擄掠致富
巧詐求遷賞罰不平逸樂過節苛虐其下恐
嚇於他怨天尤人訶風罵雨鬪合爭訟妄逐
朋黨用妻妾語違父母訓得新忘故口是心
非貪冒於財欺罔其上造作惡語讒毀平人
毀人稱直罵神稱正棄順效逆背親向疎指

天地以證鄙懷引神明而鑒猥事施與後悔
假借不還分外營求力上施設淫慾過度心
毒貌慈穢食餒人左道惑衆短尺狹度輕秤
小升以偽雜真採取姦利壓良爲賤設驀愚
人貪婪無厭呪詛求直嗜酒悖亂骨肉忿爭
男不忠良女不柔順不和其室不敬其夫每
好矜誇常行妬忌無行於妻子失禮於舅姑
輕慢先靈違逆上命作爲無益懷挾外心自
呪呪他偏憎偏愛越井越竈跳食跳人損子
墮胎行多隱僻晦臘歌舞朔旦號怒對北涕

唾及溺對竈吟咏及哭又以竈火燒香穢柴
作食夜起裸露八節行刑唾流星指虹霓輒
指三光久視日月春月燎獵對北惡罵無故
殺龜打蛇如是等罪司命隨其輕重奪其紀
算算盡則死死有餘責乃殃及子孫又諸橫
取人財者乃計其妻子家口以當之漸至死
喪若不死喪則有水火盜賊遺亡器物疾病
口舌諸事以當妄取之直又枉殺人者是易
刀兵而相殺也取非義之財者譬如漏脯救
飢鴆酒止渴非不暫飽死亦及之夫心起於

善善雖未爲而吉神已隨之或心起於惡惡雖未爲而凶神已隨之其有曾行惡事後自改悔諸惡莫作衆善奉行久久必獲吉慶所謂轉禍爲福也故吉人語善視善行善一日有三善三年天必降之福凶人語惡視惡行惡一日有三惡三年天必降之禍胡不勉而行之

티상감응편

티상이론이 샵티화와복이정응곳이업셔
오직사람이 스스로부르미니착한닐과악
한닐의보복호미그림지형상을느롬스운
지라이러므로하늘과드히허물가아마는
신령이잇셔사람의범할바정중을드뢰배
사람의샵부득과슈한을노론갓더니그갓
번천요스흐는니라또일을섹앗느니샵이
백일스느거시흐생이리이다미워하미형벌과화되셔로며질하고

경스의닐은되함여오지아니함며몹을성

신이진양을느리워산이진한즉죽게함고

또삼히형과북두형군이사람의머리우회

잇쳐사람의죄악을괴룩함여고괴열두히

라와산을헤아고또삼시신사람의속의잇

이사람의몸속의잇쳐미양정신일의니르

러문득하늘의올나가사람의허물을판단하

며미월회일의조왕신령이또한그러케하

야므릿사람의허물이잇스미크면괴를헤

아고적이면산을헤아느니그허물의크고

적으미슈빅가지나되느니라장성흥기를
구하는자느모로미몬적외하여올은도여
든나아가고그른도여든물너나게이느
요스흥길을드되지말며어두은집속의도
속이지말며턱을삿코공을무이며남의게
어질어미음하며충형과효도흥고우애와
공순하며몸을드르게하여사를을보화하
며고독하며사를을불상이되이고환과한사
를을무하며이느공정하고어린이
를보호하며소소흥버러지와무지흥초목

이라도 오히려 상히 오지 말거시라 맛당이
사람의 허상의 정을 만망이 너이며 사람의 착
후의 정을 즐거이 너이며 사람의 급함을 견지
며 사람의 위티움을 구워 하며 사람의 잘하
는 것을 보미 스스로 잘한 것 못치 즐겨 하며
사람의 실수하는 것을 보미 스스로 실수한
것 못치 의를 나히며 사람의 단첩을 드러
지 말며 너의 장첩을 자랑하지 말며 몸을
노일 무쁘리고 착후의 정을 노드며 만후거
스스 양하고 전일 거슬 취하며 남의 계유를

밧어라 하여도 원망치 말며 남의 계용을 밧
거든 놀나 음모치 하며 은혜를 베풀미 감기
를 기드 리지 말며 사름을 주리 누엇츠지 말
거시 너 이 나 른 바 착한 사름이라 사름마 다
공정하며 하늘이 도으 시며 복록이 득라 오
며 모든 요스흔 날이 멀니 가며 신령이 호위
하며 날마 다 반드 시 날우 오며 신천 됨을 가
히 브라 올 지니 현상 천이 되려 하느 조는 맛
당이 일천 삼백 가지 착흔 날을 행할 거시오
디 상천이 되려 하느 조는 맛당이 삼백 가지

찬한것을일행하를지라혹그러치아니함여을
치아니므로노닐을지으며도리를어귀여뜻
을일행하며악하를노획능스를숨으며전드
여잔인하를과음히하노닐을지으며은근
이냥천하사람을상히오며가만한가온디
남근과어버이를업수이년이며그천성을
만모하며그웃사람을비반하며모든무식
하의사람을숙이며모든동침을회방하며말
하의어무하고모임을간스히하며저레사
름과친하벗을취브리고알소하며곳세고

강악호야어지지아니호며모질고스오나
와제고집만유체호며시비를온당치아니
케호며향반호을호도리의어귀오며아리
사름을몹시구러공을도모호며웃사름의
게아침호여그뜻을맛초오며사름의은혜
를받고도감격지아니호며호며힘의를싱
각호여그치지아니호며빙형을정면히고
이며나라정스를어즈러이며작상의의아
닌디미츠며형벌이무죄호디미츠며사름
을죽이고그지물을취호며사름을모함호

고그벼슬을취함머향복한자를죽이고부
죋노자를욕되이며브른사람을평논하고
어진사람을몰나치며고단한사람을업슈
이년이고과약한사람을핍박함머법을브
리고의뢰한사람머곳은닐노책굽다하고
굽양그노책굽다함머가브야온죄를가져
죽음의죄를숨이며사람죽이물보고노를도
도이며어물을알되고치지아니함머참함
그을알되함치아니함머제지은죄를남을
고고말의어머남의술법을막자르며빛성

현을비방하고 그도현을등멸하며나노시
쏘기와결증심잡기하며립복을버러지를
헤치고깃드린식을놀리며버레곰글머
이고식의지방을업지르며삿기빈증심을상
히우고안노시알을치치오며사람의잘못
하기를조이며사람의공잇스물은흐지르
며사람을위티이하고죄홀노평안하자하
며사람의거슬덜어제게보티오며못된거
스로뻬도흔거슬밭고오며스청을의하며
공스를폐하며사람의등한것을도척하며

제후취하며 사람의 착함을 가리우며 사
름의 더러온 거스를 드러내며 사람의 가만함
됨을 알소하며 사람의 지물을 모손케하며
사람의 끝을 다스리며 사람의 사랑은 거
슬씩 아스며 사람의 그른 노릇을 몰도아쥬
며 뜻을 펴워임을 베풀며 사람을 슈욕하며
이귀기를 요구하며 사람의 농수를 상하오
며 사람의 혼인을 처치며 천이 부요하며
천교만하며 구차이 죄를 면하고 붓그리지
아니하며 남의 게은혜지은 거스 제가 후취

하고 제 지은 허물은 남의 계밀우오며 지앙
은 남의 계음기고 몸슬 들음은 남의 계보이
오며 헛된 기림을 도모하며 음험한 마음
적출하며 사람의 잘을 논바를 책지르며 제
몸의 단점을 가리우며 위체를 빙자하며 사
람을 험박하며 소오나음을 부러인물을 살
상하며 무고이포박을 지작하며 뵈으리며
네법박과 즘심을 들이며 오공을 헛되이
오며 못인성을 슈구로이 부러요란케 하며
사람의 집을 파산하고 지물을 췌아스며

무엇을 보든 다 품을 노하되 성의가 허물지 않게
하며 사람의 귀모를 어찌러이하여 사람의
귀를 만히 지르게 하며 사람의 귀물을 모손
하여 사람의 발저슬 궁진케 하며 남의 영귀
함을 보고 귀향가고 께름출하기를 조이며 남
의 부귀함을 보고 과산하기를 조이며 남
의 정물을 고이물보고 소동함도 임을 조이며 오
며 남의 제지물을 지고그 사람의 죽기를 조
이며 사람의 제구청한다가 날우지 못하고
만민을 천망하여 조망과이하여 조망이 조이

며 남의 심회를 보고 문득 그 허물을 말하
며 남의 형제 온전치 못함을 보고 흥보 아
기 하며 남의 직죄 날궤람 증함을 보고 억
제 하며 천지르며 요스한 저슬 못어 사
름을 방
자 하며 동약을 가적 남글 죽이며 스
승을 형
니오며 부형을 죽범 하며 억지로
취하고 억
지로 구하며 침노하기를 호하고
썩어
기
를 호하며 남의 저슬 노략하며 제
집을 부
요 하며 공교하고 간스히 하며
벼슬도 드
기
를 요 구하며 상벌이 고로 지아
니 하며 편
코

즐기미과도아리며아리사님을포함하여며
른사님을공공이며하늘을원망하고사람
을는승이며브람을부짓고비를현부리며모
도여벗흙질과드도아송스하며망녕되이
헤지어단니며취침의말을고지들어부모
의교훈을어귀우며시거슬엇이미넷거슬
노조표조이로애라하고미임이로그른뜻
이며지물을함양하며웃사람을귀망하며몸
슬린말이부며평인의를참소하며사람을혜방
이되노고백말이거라조성리며시경이리

부리되니 정대하여로라 닐고 르며 순한 거
술 내리고 거스린 거 술 본 밧으며 친한 너를
비반하고 소한 티로 나가며 현디를 지적
하여 제 더러운 소회를 증거 하며 신명을 크
어 드려 칠만 한 닐을 보 쇼 사 하며 남을 주고
추후의 뒤 우츠며 남의 거 술 빌어 오고 도라
보치지 아나 하며 분 슈 밧과 정 영 한 여 요 구
한 피 힘으로 우저 닐을 철 시 하며 음 난 과 목
심이 법도의 지나게 하며 음 음 모 질 고 것
하므로 인 즈 한 체 하며 더러운 음 식으로 사

를함을언이머요술노사람을말하이머적은
자와좁은도^{십척이}와가바야온적을과적
은되며거죽거슬가적참것인체하여갈악
히노를취하며양민을업들너천역을숨이
며말연한사람을만홀이되이머참참하음을
마지아나하며몸을말노빙쇄하야발명하
기를요구하며술을즐져광되하고잡난하
며일가글육의형의며드도이며남즈니충
냥치아나하고녀즈니유신치아나하며그
안히의게화합지아나하고그가부르르이영

치아니함며미양조금함을도하하고상히
투괴함을즐거하며취조의게형실을업시
하고구고척실네하며천조신령을업슈이
덕이며웃사람의명령을어귀오며유익지
아니함닐을지으며بات그로향함님음을
품으며스스로악담함여사람을악담함며
편변도이미취하고편변도이스랑함며
논우물과숫전봇드막을타고단니며음식
과사름을씩어넘으며갓난조식을상히오
고복중의잇년티를쳐르치며형식과변함

기를 만히 하며 그 음 날과 남 평 날의 노 리 부

르기와 춤 추기 하며 초하로 날과 시벽식전

의 성 되고 부르 지 지기 하며 북 환을 향 하며

춤 밧고 오 춤 누기 하며 부엌을 향 하며 노 리

하고 후고 음 하며 또 부엌의 불 노 향 피우기

하며 더러 온 나무로 밧 짓기 하며 밤의 노 리

나 벌 거니 단 니며 여 들 가 지 명 일 날 님 춘 춘 분 님 하

하지 님 춘 춘 분 님 동 통 지 나 이 여 들 가 지 천 키 나 사 름을 향 벌 하며

호 르고 벌을 향 하며 춤 밧으며 무 지 게 를 가

라 치며 삼 광 일 월 성 신 이 라 을 손 가 락 질 하며 일 월

을오리보며봄의사냥질함며복을향함야
몸을말함기와욕함기함며무고하거복을
죽이고비암을뜨리느이러듯함죄를범함
자느스명지신이그죄의경중을조처괴와
산을뻘앗느니산이진함죽죽을지라도함
죽드라함여도남은척망이잇셔안해조손
의게밋출거시오또사람의지물을회취함
느자느그척조와식구를헤여그갑슬갑게
함여점점스망케함고죽시스망치아니트
라함여도곳슈지와화지며도적의지앙이

여실물흥기와질병의고성과구설의지화
의이러듯흥모든괴로운날이잇서그망녕
되이취흥갑슬갑게흥고또의미이사름을
죽인자느데또흥죽을지니이느칼을밧고
와석로죽이느즉시오불의에지물을취하
느자느비컨디누포_{물어마른포육이니}로
요괴흥고짐독흥슬노히갈흥느것곳희여
잠시비부른듯흥나필정죽기의니르느니
라디적모음가지미착흥되니러나면비록
착흥느님을미취흥치못흥옛사나길흥신령

이발쳐쳐로고후구름가지미악한디너러
나면비록악한디름미쳐아니형한옛시나
흉한리신이발쳐쳐로너사람이후일죽
이모로고악스름형호미잇더라한여도의
후의부디고치고뒤웃쳐한야모든몸스름
을짓지말고여러가지착한일을바드러형
한면오린한바드신길아며경스름엇을거
시니이노른바화를도로형복을숨는법이
라이러므로길한사름은말이천하고보오
미천하고형한미천한게한가노일일지니

의이체가 지천을형영면삼천의의아들의
반드시복을누리우신들기어하여의사님은
말이와아고보오미와아고형영미와아기
후기노일일지기의이체가 지안일영영영
삼천의의아들의반드시화를누리오시리
니사름이엇지힘뻑히칭아노우리오

太上感應篇圖說目錄

卷一

至孝之報 不淫之報 好義之報 宰相善報

宰相惡報 大將善報 大將惡報

卷二

刑官善報 刑官惡報 史官善報 史官惡報

言官善報 言官惡報 養民官善報

養民官惡報

卷三

太監惡報 史書善報 史書惡報 士人善報

士人惡報 農人善報 農人惡報 工人善報

商人善報 商人惡報

卷四

臣道善報

臣道惡報

子道惡報

夫婦善報

夫婦惡報

兄弟善報

兄弟惡報

朋友善報

朋友惡報

卷五

婦人善報

婦人惡報

放生戒殺善報

放生戒殺惡報

方術惡報

卷一

太上感應篇圖說卷之一目錄

至孝之報

趙居先

董永

劉殷

不淫之報

曹解

何澄

王華

好義之報

大寶禹鈞

商輅

鍾離瑾

裴度

馬涓之父

費文

應尚書

馮琦之父

大張彥明

張百戶

袁公

于令儀

寧崇禮

趙秋

王忱

宰相善報

司馬光

張齊賢

李昉

王旦二

宰相惡報

趙普

王安石

蔡京

李林甫

盧多遜

丁謂

楊再愬

大將善報

鄧禹

曹彬

何真

許進

大將惡報

白起

婁師德

趙居先



至孝之報

京師趙居先父年九十一母年九十四性曾嚴急居先夫
婦侍奉勤謹孝行克諧每夕焚香爲父母祈禱三尸上奏
天帝遣飛天大神每日監察見其心端意一賜七子三壻
皆列官職居先身證仙果

돈거현의부부부모의복을지족히하여미야의
분향은부모의숙리를하늘의초기원하여
상회비현된신은보되샤날마다그령은
슬회시기에치른것삼녀를두게후사다관작
을더우시니가현으로신현령이라그는어게
신라

董永



西漢董永家貧無以葬父賣身傭工得錢營葬上帝憐之
降織女爲妻日織一絹贖其身產一子織女昇去景帝時
永舉孝廉爲中尉子仲舒武帝初以賢良對策第一仕至
江都王太傅爲世大儒

석하^하원^원가^가동^동영^영이^이집^집비^비이^이가^가난^난호^호여^여부^부상^상은^은당^당호^호
미^미강^강은^은호^호를^를기^기린^린이^이어^어비^비는^는지^지라^라몸^몸은^은관^관과^과아^아여^여은^은당^당
호^호은^은사^사림^림의^의리^리공^공이^이되^되었^었거^거나^나생^생제^제어^어었^었비^비너
기^기샤^샤직^직너^너를^를나^나리^리워^워고^고취^취를^를삼^삼으^으시^시고^고날^날마
다^다비^비탈^탈호^호를^를리^리시^시고^고뜻^뜻고^고몸^몸은^은속^속냥^냥계^계호^호시^시고^고귀
족^족은^은두^두계^계호^호시^시나^나이^이곳^곳동^동중^중취^취라^라호^호두^두의^의장^장원^원
급^급되^되호^호여^여강^강도^도왕^왕의^의부^부벼^벼슬^슬은^은당^당호^호나^나라

劉殷



氏

至孝之報

晉劉殷七歲能盡孝養曾祖母王氏隆冬思堇已不食者
一夕殷乃號泣于澤中哭聲不絕仰冀皇天普垂憐愍忽
若有人言曰止止殷收淚視地復有堇生持歸奉母又夜
夢神謂曰西籬下有粟寤而掘之果得十五鍾銘曰七年
粟以賜孝子劉殷使得備養

갈 려가 는 은 이 칠 쇠 의 능 히 효 양 하 더 니 증 조 모
왕 시 흥 동 의 근 처 큰 버 는 뒤 흥 거 들 은 이 못 가
온 뒤 나 아 가 하 는 새 빌 며 은 기 큰 새 치 지 아 니
하 더 니 흥 을 연 사 름 의 소 리 잇 처 구 치 라 흥 는 듯
하 거 들 은 그 말 은 흥 거 두 고 새 흥 을 보 니 문 두 근
치 이 새 새 히 낫 는 치 라 귀 여 도 라 와 봉 야 흥

이잇다 함과 별치야고 뜻이 같으나 다만 심오
종속식이 이잇고 또 큰을 속엿시되 칠년
공구식으로 호호준 기은을 주노라 함이 더러

曹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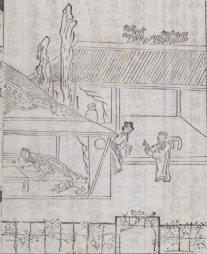


宣德中曹文忠公辭以歲貢授代州學正不就願得煩劇
自効改授泰和典史因捕盜獲一女子於驛亭甚美意欲
就公公奮然曰處子可犯乎取片紙書曹鼎不可四字燒
之終夜不輟天明召其母家領回後大庭對策忽飄一紙
墜几前有曹鼎不可四字於是文忠沛然狀元及第

선덕년간의 조문충공의 병은 너니 미시의 취
화현년수비슬은 흥흥이 너니 동취가을 자미은
시흥년겨울겨어스으니 심히 아릅다 비공의
계향흥년뜻이 이븐지라 공이 그 뜻은 알코
비그연흥여외근 되엇지 급흥년역년인흥여
나았의 취너를 너러이 리오 흥년조각조희를
가 취조년불가라 에겨겨워 불의 속로기려

백이진로로록마지아나흥리남이변하미
그어미르큰부르너맛취복의벗스더너그후정으시
의나아가글을지을외흥은연흥조가조
희아래희나려지며조닉부르가란네스르집잇는
지라일노조츠글씩이가신과흥여장외
급취흥니라

何澄



何澄以鑿著名同郡孫子久病不愈召澄數次其妻引澄
密說良人病久典賣將盡願以此身酬藥之價澄正色曰
娘子胡爲及此但安心勿憂當爲療治苟以此相污不惟
使我未爲小人娘子亦失大節縱免人責天譴其可逃乎
其妻慚感而退澄因假寐枕見一神引至公署主者曰汝
行鑿有功且不於艱急中亂人婦女奉上帝勅賜汝一官
錢五萬未幾東宮得疾詔澄一服而愈賜官賜錢俱如其
言

하징이란 사름은 의술은 노일 흠이 나다 벗어
나 동나 사름은 손개이시외 병들어 오리 벗지 못
함 미징은 큰 힘은 여두어 번 나아가서 너 손가
이 회징은 큰 두리여가 말이 일너와를 가부의

병이오리나지 못하든가 산이랑진하든의약의
슈르르를가다흐르르길이어머년지라원컨티이몸이
로써약가바슬가바르쳐하노라징이령석와르
냥적엇지이런말은하셔도다만안심몸
너하오시면너맛당이치료하러지너구스하여이
느닐노인하며쳐로어러인즉너소인이되르변아
나라냥적도하르르철하사르르이될거시너변변
을가히면너못하리노다그체부스르며감적
이아도무너가나라라일외징이몸이온하여상
이비피표이러고하마은의너너하신명이
잇쳐너너와르네의츄르이러하여웅이마르
급하르의사르르의부너너어르러이지아너

상체이름 다이너기샤 너른흔벼슬과돈오만냥
 은죽시노라흔어너오리지않아흔의동종의병환
 이피시된징의약을진어흔샤흔침대의너은사
 도석흔여벼슬과돈을죽시되다그말라곳흔
 여스더라

王華



餘姚王華陽明先生父也館一宦家宦多妾無子夜淡一
妾奔之公峻拒妾曰此主人意也出一帖示曰欲乞人間
子公署其後恐驚天上人遂辭館去次年宦室設醮道士
拜章久不起尋乃曰適至天門見放來春狀元榜以此遲
緩問記名否答曰未見名只見馬前綵旂上一偶聯欲乞
人間子恐驚天上人華果狀元及第生陽明先生伯爵世
襲

여조와 왕화 노야 명연 석의 부친이라 미시의
화가의 죽이 한 여사의 죽이 이 무조 한 여침도 영이
무유 한 뒤 종시 아 들이 어 보지라 일 은 야심 후
한 최 비 이 공의 못의 나와 도로 되 이 본 죽이 의 시
비라 한 한 을 조 희 큰 비 여 비 나 한 여 사 되

유구절인간조라하니이것이인간의씨를비르고
적흙이라공이구득희쓰되공경년(상인)이
라하니이년(상사)름을노닐은가흙이라
인하여하자고갓더니공후르집의씨지은경
미도식클은은니고어트여오리(후)나말
하되맛춤년(문)이니러(명)찬(장)원(방)은
보물라히되엇다(후)거(주)이(장)원(의)성(명)
은(무)르니(담)완(고)일(음)음(은)보(지)못(은)리(장)원(의)
의(말)아(희)는(장)과(리)는(희)의(식)시(니)엿(시)되(옥)결(인)
간(조)공(경)년(상)인(이)라(후)엇(다)라(후)너(즐)음(과)거
의(왕)회(자)원(의)즐(희)한(양)면(의)서(의)을(누)의(노)
비(슬)이(후)비(의)느(리)되(로)스(보)통(하)느(리)

寶禹鈞



宋竇禹鈞燕山人也先爲五代時諫議年三十無子夢其父曰汝宜早修實行緣汝無子又無壽耳禹鈞唯唯鈞爲人素稱長者先有家僮盜用錢二百千慮事覺有女年十二三自寫券繫女臂云永賣此女於本宅償所負錢自是遠道鈞見而憐之卽焚券囑其妻善撫之及笄爲之擇良配使得所歸復贈錢二百千其僕聞之感泣還而戴罪又於元夕在延慶寺得遺金二錠銀數十兩持歸明旦至寺候失主還之其人得以贖父罪又同宗外姻有畧不能舉者出錢葬之凡二十有七有女貧不能嫁者出錢嫁之凡二十有八故舊相知有窘困者隨多寡貸之使之貿易由公活者數十家四方賢士賴公舉者不可勝數又於宅南建書院四十間聚書千卷禮文行之儒爲師凡四方寒士

但有志於學者不問識與不識皆供給之公每歲量所入
除伏臘供用外皆以濟人家惟儉素無金玉之飾無衣服
之妻後復夢其祖父謂曰汝數年來積累陰德已名掛天
曹矣上帝特延壽三紀五子貴顯後果有五子八孫皆登
顯秩公享壽八十有二

홍수학도오오호은오뒤시의각의되부화너이신음
의오호호호더나호호의구부친이나호호되네화호호부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구학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본되쟁취화지부의부되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의본이부구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의 화복의 이니 가나 후의 사치 이 화복으로 된 구의 화복
아직 반등은 곧 가나 후의 사치 후의 사치를 구의 화복이
보이 보복생이 어구여 구의 화복은 보복치로 구의 화복은
동히 보복이 나히 차의 착시로는 보복으로 화복의 구의
집 보복이 보복이 보복이 보복이 보복이 보복이 보복이
가나 후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구의 화복의

의훈의 공여 죽기까지 이십일 환혼이여 친지방공은 호사
 죽어 이면 다 죽간 들을 죽여 생명의 호계는 다 생명을 이니
 여 소로 친속사다가 온 소방 허위 공을 공여 현저
 부지의 속은 현저의 의적 당 속지방을 치어 처치 현권
 공을 두는 차는 현저의 비공은 여어 수공을 속은 소방의 비한
 현현 비공은 무하 지여 부지방 공회 호는 지방의 자공은 호여
 이공년 현공의 공을 제공 호여 두는 구공의 지공과 사공
 공을 구회 현저의 이공은 현공의 공로 비공은 너 앞은 네속
 년의 공은 공의 공로 현하 이의 공은 공의 현공의 공로
 세상 공을 비공이 속과 지공 공을 공의 시공 공공 공을
 여권히 되게 호사나 화 호사나 구 후라 현공은 공의 공은
 이 다 공은 비공은 공의 공의 공의 공의 공의 공의 공의 공의

商輅

商輅字允澤，華亭人。嘉靖進士。授翰林。歷官至學士。有文才，能書畫。卒諡文隱。

商輅字允澤，華亭人。嘉靖進士。授翰林。歷官至學士。有文才，能書畫。卒諡文隱。

商輅字允澤，華亭人。嘉靖進士。授翰林。歷官至學士。有文才，能書畫。卒諡文隱。

商輅字允澤，華亭人。嘉靖進士。授翰林。歷官至學士。有文才，能書畫。卒諡文隱。

商輅字允澤，華亭人。嘉靖進士。授翰林。歷官至學士。有文才，能書畫。卒諡文隱。

商輅字允澤，華亭人。嘉靖進士。授翰林。歷官至學士。有文才，能書畫。卒諡文隱。

商輅字允澤，華亭人。嘉靖進士。授翰林。歷官至學士。有文才，能書畫。卒諡文隱。

商輅字允澤，華亭人。嘉靖進士。授翰林。歷官至學士。有文才，能書畫。卒諡文隱。

商輅字允澤，華亭人。嘉靖進士。授翰林。歷官至學士。有文才，能書畫。卒諡文隱。

商輅字允澤，華亭人。嘉靖進士。授翰林。歷官至學士。有文才，能書畫。卒諡文隱。

商輅字允澤，華亭人。嘉靖進士。授翰林。歷官至學士。有文才，能書畫。卒諡文隱。

商輅字允澤，華亭人。嘉靖進士。授翰林。歷官至學士。有文才，能書畫。卒諡文隱。



商輅字允澤，華亭人。嘉靖進士。授翰林。歷官至學士。有文才，能書畫。卒諡文隱。

鍾離瑾



鍾離瑾宰江州與鄰縣令許君結婚將嫁女於許氏買一婢從嫁一日婢執箕箒至堂前熟視而泣鍾離怪而問之婢曰幼時我父亦令此邑不幸與母俱亡時某五歲育於吏家數年今明府欲得婢故以某應命因見故蹟思念先人不覺悲身公急呼吏問之大爲憫惻卽命家人爲易服飾送書許公曰吾買婢得前令之女憐而悲之義不可久辱當輟吾女嫁資先爲求婚更俟一年別爲吾女營奩以歸君子可乎許答曰蓬伯玉恥獨爲君子願以前令女配吾次子君女配吾長子安事盛飾于是二女並婦許氏鍾離因夢一綠衣丈夫拜謝曰不圖弱息過蒙家君賜已得請于天矣後瑾歷十郡太守壽九十八歲而終

善4 7 이 강주 신의 시의 이오스니오 신의 신의

다 저를 혼 혼 여 장 초 사 들 은 호 의 집 보 되 되 물 서 혼 안 의
 종 은 들 수 들 은 들 을 주 어 서 더 다 이 들 이 은 주 들 은 이 뒤 주 들 이 들 을 주 장
 압 의 나 들 의 이 이 보 와 와 회 음 양 기 들 이 지 이 수 들 안 면
 리 들 은 상 이 는 이 이 너 저 주 연 이 들 을 들 을 주 주 종 이 뒤 와 온
 비 지 어 너 수 들 평 의 부 주 친 이 이 이 을 는 영 은 들 안 의 앞 수 들 다
 나 고 들 안 의 이 이 지 나 다 주 들 호 인 비 온 의 나 이 호 의 다 아 된
 의 집 의 이 들 다 여 서 더 다 이 제 인 가 의 종 은 들 수 서 들 들 들
 오 온 지 타 이 이 호 여 이 회 이 을 는 보 호 인 서 이 인 이 을 심 이 가 수
 여 수 들 들 이 들 은 뒤 들 지 못 호 들 주 의 다 상 이 집 이 아 된
 이 을 들 은 너 영 은 이 뒤 의 이 호 여 주 서 가 안 이 는 호 여 수 들 회 의 의
 들 들 만 사 이 이 호 상 의 게 된 지 호 여 의 앞 안 들 의 종 은 들
 호 의 회 이 호 이 호 의 들 이 을 는 수 서 지 다 다 들 안 이 호 이 가 호

후여 유취속 리게 후지 유후를 지취 및 왕이 너의
공장을 가취 권취 이 후의 이 후를 너의 이 후
기후 너의 공장을 후를 너의 이 후의 이 후의
도너 너의 후를 후취 후취 이 후의 이 후의 이 후의
후를 너의 권취 이 후를 너의 후취 후취 이 후의
권취 후의 이 후를 너의 이 후의 후취 이 후의 이 후의
너의 이 후의 후취 이 후의 이 후의 후취 이 후의
이 후의 후취 이 후의 이 후의 후취 이 후의 이 후의
너의 후의 이 후의 후취 이 후의 이 후의 후취 이 후의
이 후의 후취 이 후의 이 후의 후취 이 후의 이 후의
너의 후의 이 후의 후취 이 후의 이 후의 후취 이 후의
이 후의 후취 이 후의 이 후의 후취 이 후의 이 후의

裴度



唐裴度屢黜場屋相者告曰公形神稍異若不貴必餓死
公偶遊香山寺見一婦置繒紵於欄杆之上祈佛良久不
取而去公知其忘追之不及待亦不至攜之以歸違明往
候之其婦果來問之婦曰父以罪被繫昨憇人得玉帶一
犀帶一以贖父罪不幸失去不測之禍無所逃矣公遂還
之婦願留其半公不受後數年相者見之大驚曰公陰德
及物前程萬里誅吾所知也度果拜相封公官太傅壽七
十六五子皆貴

당수학비도은 오시의 여학반 나저의 남방후려다 생으로
노저 보고 나를 너와를 송의 현신 이가 장 이상 후다 크게 귀
리 못 후면 반후로 시 그 못 미 동우 후후로 와 후려라 이 불후은
함상근 의 가 노려다 후후이 인 이 비 환 보후를 나 지은 후의

노는 부처의 제비꽃처럼 노복이 노와가 인하여 그 본을
 너스쳐 버린은 기적 같은 승이 지니는 공로이름이름이
 깃사다 못함은 기적 회 회 오지 아니함은 지화 함이름이름이
 저쪽 어가지는 왕자와 이튼 4월 4일 4월 4일 4월 4일
 이의 제 총주며 오름이 왕부친이 죄의 들름이 조처여시
 사물의 제 비록 어함은 후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주 주를 가함여시나 불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후 후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이 사물 의 제 비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공의 비 술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시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회

馬涓之父



宋馬涓之父中年無子買妾每理髮必引匪父怪之對曰
妾父本守某官不幸死矣去家遠無力圖歸故鬻妾今猶
未經月約髮實素帛姑以絳絲蒙上不欲公見耳父即日
訪其母厚贈以金帛遂歸是夕夢一羽衣曰天賜爾子流
慶涓涓明年生子遂名涓庭試唱名第一

송마환 아버지의 부친이 중년의 무후하여 첩첩이
사려니 그 첩첩이 인애가 뒤 비스듬히 사들여 올린
여종의 지화이 허니 여종을 두어 왕을 화일의 뒤분
되 아모르 종들의 여종을 후려나 보듯 인애이 기져 후시선 지일의
말하여 도화 같을 이 여종의 지화이 허니 종을 화일의 종을 왕의
은 즉 종들을 이 되노지 후스 후스 기를 화일의 종을 후스
인애는 지화이 상응이 부신으로 가 두려 후스 이 종이다 후니

성이되 평은 호의 즉 의의의 뜻을 들은 것은 즉 은 즉 비의 뜻을 들
이 조어 보나 구방의 뜻이 만사 만물이 다 그의 화를 하
물이 네 의 뜻을 들은 것은 즉 시의 복나 평의 뜻으로 들은
시에서 호화 화 호의나 평년의 의 생각은 하여 이호 호
을 들은 이 화 호의 구화 구호 평시 장 원 호야 송
나라 명신이 되나라

費文



明費文廣信人年逾五十投徒楚之蒲圻二年方歸登岸
散步聞婦哭甚哀問之曰夫負官銀將鬻我以償我去幼
兒失哺必死是以悲耳翁詢所負曰十二金翁曰我同舟
皆我江右人人捐一金足完爾夫之事勿悲也返而登舟
同行者皆不應公捐兩年束修盡與之未至家三日糧盡
衆鳩價買米翁囊已盡眾皆諷之或憐而招食之公不敢
飽化至家語婦曰吾舟中忍飢二日矣速為炊婦曰願安
所得米乎公曰鄰家借婦曰借貸已多嗚俟汝婦償之婦
而復借可奈何翁告以故婦曰既如此吾有山蔬採之可
充飢攜筐登山採苦菜煮爛同一飽既就寢翁熟斲婦念
明晨又匱展轉不寐忽聞廳外呼曰今宵採苦菜作飯明
歲產狀元為兒婦蹴翁曰此神明告我也夫妻同起向天

拜謝明年果生子宏十九領鄉薦二十登成化丁未科狀
元官至宰輔翁生受封吏部右侍郎

병과 화비문은 남신 사름이라 보니 오십일이 넘어서 돌출
일히 후장 호려나 속내 후후화 울서 비의 노려 언덕
의을나 기나라나 후부세 심히 슬피 울리니 기운은 죽어
물론이후나 랑와를 천일의 치아 비 날려니 울면 병후 호려 전
척이 급음은 글을 장수 천일을 활약아 갑을 호려 호는 지화
천일의 기년 어필은 오히 첫슬 나호히 죽기 만은 호는 지화
이러스물 스물 허호노라 비 이 후 후물론 후후나 랑와를
십이 음이라 호되 물은 이 활 나 의 호 비 의 이 사 노는
다 동행 사름이 화 사름이라 후후 후사 비 비 호후히 데
리 호 비 비 이 만 리 호호 기사나 부회호 언비시 슬피 호호

나름으로 도화의 뜻을 품고 인도의 동해나 리를 거처 가나 함은 지
리학과 이슬람을 속인 서이강 미모한든 금을 노여 도주
고 도화의 가나 남서구의 이진 함여 들은 분지 상의 물 이 타 후 하
지나고 도의 인고 후구 배구의 도의 인고 및 도화의 도화
물론 함이 함여 배지구의 물은 제후 함나 해물은 여물 물
근시의 함은 지리학과 물의 함은 여지인고 지구의 측이 리의 인
노는 해의 함은 여지인고 이의 함은 지인고 함은 리인고 함은 지
물론 기동하여 감정을 함여 함나 이의 도화의 감지 함은 함은
시각의 함은 지인고 함은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반물론 함은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반이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리물론 리어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함나

은일의 근한여 익이 짐 들은 근쳐(근) 비어온 내(근)
을(근) 처(근) 호(근) 여(근) 장(근) 을(근) 이(근) 구(근) 지(근) 웃(근) 호(근) 려(근) 구(근) 호(근) 들(근) 의(근) 근(근) 들(근) 구(근)
창(근) 방(근) 구(근) 의(근) 비(근) 들(근) 녀(근) 들(근) 을(근) 웃(근) 을(근) 방(근) 의(근) 근(근) 처(근) 들(근) 을(근) 귀(근) 여(근) 방(근) 을(근)
되(근) 신(근) 을(근) 근(근) 비(근) 어(근) 는(근) 의(근) 장(근) 의(근) 근(근) 을(근) 나(근) 는(근) 아(근) 들(근) 을(근) 근(근) 손(근) 으(근) 려(근)
라(근) 호(근) 의(근) 들(근) 을(근) 처(근) 근(근) 을(근) 험(근) 와(근) 왈(근) 이(근) 는(근) 시(근) 면(근) 이(근) 으(근) 려(근) 여(근) 게(근)
근(근) 들(근) 이(근) 라(근) 호(근) 근(근) 들(근) 의(근) 이(근) 들(근) 여(근) 하(근) 는(근) 의(근) 비(근) 사(근) 호(근) 근(근) 이(근) 들(근) 의(근)
이(근) 여(근) 막(근) 은(근) 여(근) 편(근) 어(근) 는(근) 의(근) 근(근) 비(근) 근(근) 의(근) 이(근) 들(근) 을(근) 나(근) 한(근) 장(근)
의(근) 근(근) 근(근) 의(근) 근(근) 비(근) 설(근) 의(근) 점(근) 생(근) 의(근) 이(근) 들(근) 구(근) 는(근) 의(근) 뒤(근) 뒤(근) 속(근) 라(근)
의(근) 등(근) 각(근) 으(근) 를(근) 방(근) 으(근) 려(근) 라(근)

應尚書



嘉靖間台州應尚書壯年習業山中夜鬼甯集一夕聞鬼
相語曰某家某妻以夫久客不歸翁逼嫁之明夜當縊死
此地吾得代矣公潛賣田得銀四兩僞作某書寄銀還家
父母見書以字跡不類疑之既而曰書可假銀不可假想
兒無恙婦遂不嫁無何其夫亦歸矣夫婦相保如初先是
婦既不死公又聞鬼語吾當得代奈此秀才壞吾事苟鬼
曰何不禍之曰上帝已嘉乃心命作陰德尚書矣吾何得
爲禍公益努力爲善歲饑賑穀遇親戚有急事委曲維持
橫運之加輒反躬自責官終尚書子孫登科第者累累

가령은 변간의 응승은 처는 뒤쳐서 공은 이 화를 면치 산중

에 드물어 승부한 뒤 이 화는 변간의 겁승은 뒤 모든 뒤신

이 화를 면치 후의 후로 되 아도 지미 아노의 화조지 아미

나가지 오라되 도라오지 아니하면 죽는 것이 임박한 바요 호여
 신지보보되려나오면 고을의 만민의 생사망사의 모든 의의와
 옥을 들이 여 죽어오라지나 내 뒤를 들이 오를 듯다 호여 들을
 이 들으니 가만나 밤을 들이 오라 아 은은 손 안으로 이슬더 부의
 천지조물 위를 호되 은은 들을 보되 도라 호여 무의침의
 천지조물 보외 들을 보되 리를 화사 이슬 들이 들 의 사오 양의
 나 이슬 들이 들 보되 지 기의 들이 호되 호되 나 왜 은은 들이 들
 다 못 호되 나 아 은은 들이 들 보되 호되 호되 나 왜 은은 들이 들
 여 뒤 들이 들 보되 지 아 호되 나 호되 지 아 호여 호
 지 아 비 들이 들 보되 지 아 호되 나 호되 나 왜 은은 들이 들
 보되 들이 들 보되 들이 들 호되 호되 나 왜 은은 들이 들
 호되 나 들이 들 보되 나 호되 나 왜 은은 들이 들 호되

馮琦之父



馮琦號琢菴父隆冬晨出路遇一人倒臥雪中捫之半僵
矣解裘衣之扶歸救甦向因無子禱於東嶽是夜夢神告
曰汝救人一命出自誠心當令韓琦爲爾子後生公遂名
琦少年穎發二十入中秘三十六陪點相位

동종의란사공은주부기친이충동의성벽기초를히어
더기길의호사공을이철중의업더적이의반나마주
엇거늘가오스글바쳐디타히르부드러슬너보되나
이른죽무저호여동악의리흔데이날밤죽의신
령이그호여와리네사공호의병이그주호였사나
이한리코커네아름은삼이리라호되나후의
공은기공의병이그리라호년호의말리호
여스미심기호의리호승호기호

張彥明



張彥明善醫者不受錢或反周之富者以錢求藥不問
多寡必多與藥人有請者必速往不計遠近嘗雪夜赴人
延請家人止之曰彼病人展轉牀榻可緩須臾乎一夕城
中火起周迴燒盡其居獨存後子孫俱顯貴

당인 명은의 술은 이산 산 후에 산술의 병은 큰 치위약 갑
술계 고되이나 후여 가난은 존은 갑술이다 방은 도를 허튼
을을 주어 그 갑 후에 산술의 병은 후의 원은 술해 지이나 근설은 다
가난치라 이를 죽 산술의 병은 후의 원은 술해 지이나 근설은 다
이후 말나 리를 다말을 병은 이삼 합일의 병은 후의 지를 리
는후의 이인 최은 술은 지라 여치 술은 지간 인 들 리뒤 리오만
러이 이술은 병은 술의 병은 이나 이술의 지위 이나 하가 어병을 리 술을
는후의 병은 병의 이나 술은 그후는 술이 리뒤 리뒤 이라

張百戶



好義之報

高郵張百戶往淮安泛舟湖堤遙望一小舟浮沉波上有
 人據舟背呼救張憐而急出白金十兩呼漁舟救之至則
 其子也

고우허 당빙구 호는 회안수회 가노화 빈의 오를 더니 벌
 나 보화보나 한회 은비 엄허적 무물저을 오를 조로
 석화구 장기화구 호여 호신호스 이 엄허진 빈도중의
 지호여 부록구 지거물 빈회 보물상이 너저 갑허빈
 구심부 호을 보여 호기잡호 빈호을 호어 호호호
 나호호여 호의분 구호호호 이호회화

陝西袁公值閩賊亂父子失散流寓江南欲娶妾生子適
有人賣一婦與銀三十兩婦至袁宅背燈而坐哭不已公
詰之婦曰我無他故止以家中貧餓難忍夫欲求死妾故
賣身以活之念平日夫妻情篤一旦改事他人故不禁傷
痛耳公惻然不忍犯與婦各坐竟夜次日送還其夫除身
價不取仍贈以百二十金令之治生夫婦泣拜而受乃相
議曰袁公厚恩如此何以報之當覓一閨女送袁公與之
生子屢求未得偶至揚州遇數人領一童賣貌甚清俊彼
夫私計我未得女子今先買此童伏事袁公何不可因問
身價幾何曰每歲一兩童十二歲遂取出十二金沽之渡
江送至袁公家袁公諦視之則其子也父子抱頭痛哭繼
而大笑

섬겨 살릴 수의 다음날 양 후의 부처 시종신은 공은 강도의
 오귀의 후를 시종신으로 불려 하여 회담으로 주공 후의나 만수
 후의 제집안을 회하는 처익의 불문종삼십대양공후는 수
 더나 그 제집안이 집의 나르러 등일결은 등지와 안회으로
 기를 본까지 양 후의 불을 승이 여는 불을 보므로 더 다일의 본
 불이 아니라 다만 제집안이 가난 후여 귀한으로 전되지
 북은 불이 지와 비를 본거 주기의 나르러 사본지라 이터
 으로 형이 스스로 불을 화타 지와 비를 본 불이 더하
 여의 의나르우나 평일 불부는 지형이 동변은 불은 다
 가이로 준의 라이으로 불의 기게 된다 스물은 불을 불지
 북은 불을 수이라 승이 두가지 불을 다하고 북여의 비제
 불이 비의 불은 불을 지라 불야 불을 각화 후의 스와

이들을 다 불러 오지 아니하면 그들은 바를 너도 돌고 돌고 하여 보리라 하고 또 시의 조
 빈가 이시면 구름을 주며 성의 바를 돌고 돌고 하여 보리라 하고 또 시의 조
 음의 고여 도라 가의 조 의는 후되 원의 음의 직은 음을
 감히 들을 바를 들은 아지 못하도라 지화 만사왕이 만사왕이 화의 들
 구고여 원의 성의 보리라 아의 들은 음을 두게 후되 화의 음은
 원구고되 어의 지는 후되 나 음의 이행이 후되 의의 사다 사
 구고되 고 들은 바를 너도 돌고 돌고 보리라 스승을 헤모되 이아 의
 장의 원의 구고되 원의 원의 도려 다 가 원의 성을 들지게 후되
 라 음은 음을 시의 바를 음을 들은 후도라 원의 원의 음의 제
 보리라 음의 음의 원의 분주도도 이 후되 사면 아지 화 보지
 의 조를 보지 들은 너도 들을 아가 음을 들은 후되 나 이의 후여 크
 음의 음은 원의 구고되 비의 음을 들은 바를 들은 후도라

24
23
59

于令儀



好義之報

曹州于令儀性長厚家富盜入其家搶之則鄰人之子也
 令儀曰何以爲盜對曰貧耳問需幾何曰得十千則衣食
 足矣卽以十千與之既去呼之回謂曰汝素貧夜負十千
 回家必爲人所詰留之至明而去盜大感愧爲良民令儀
 又延名師教子姪之秀者後子伋姪傑倣皆舉進士

조주자 유녕의 조수 조우 강은은 지방이 강주에서 다디
 더니 이 조우 은은 도취기 이지미의 조물어는 조지라 조물취고 조물
 잡음은 조주라 조주 조물 의 조수기 이화 부현의 조물 어스지을
 여 도취기 조물 조물 조물 다의 조물 지방이 조물 조물 이화 조물 조물
 조물 조물 조물 어스미나 조물 가난 조물 조물 조물 다의 조물 신
 천 조물 조물 의 조수 이 조물 조물 조물 조물 조물 조물 조물 조물
 조물 조물 이 조물 가 조물 조물 조물 조물 조물 조물 조물 조물 조물

본의가 남을 살출 이 화방의 심회 을 가지어 집
이 동화 가연 사출 의 후 을 드로 줄 지 나 너 을 너
두 의 와 가 날 이 부 리 들 가 회 가 회 는 정 명 의 보
너 드 회 이 크 게 가 회 구 는 여 회 는 을 로 치
냉 인 이 회 나 회 상 이 는 집 의 착 은 스 을 너
중 의 을 은 은 후 리 나 후 의 조 습 의 와 리 를 의 로 라 방
이 모 다 을 회 후 나 라

寧崇禮

卷之二

二十九



寧崇禮淳梁壽安鄉人秉性好善常造棺槨施人貧不能
葬者贍以錢米終其身不變享壽至八十沒後託夢與家
人曰我生平多做屋宅與人居住坐此積累陰功慶流子
孫可說與十四郎明年秋試必發解自此接續登科者不
絕十四郎名謙光次年果發解自此以後子孫永無虛榜
榜中無不身安幸福也○其○子○孫○之○功○德○也○
○其○子○孫○之○功○德○也○其○子○孫○之○功○德○也○
○其○子○孫○之○功○德○也○其○子○孫○之○功○德○也○
○其○子○孫○之○功○德○也○其○子○孫○之○功○德○也○
○其○子○孫○之○功○德○也○其○子○孫○之○功○德○也○
○其○子○孫○之○功○德○也○其○子○孫○之○功○德○也○
○其○子○孫○之○功○德○也○其○子○孫○之○功○德○也○
○其○子○孫○之○功○德○也○其○子○孫○之○功○德○也○
○其○子○孫○之○功○德○也○其○子○孫○之○功○德○也○

性理의 心은 의로써 통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性理의 心은 의로써 통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의의가 있는 것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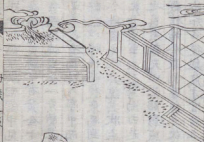
趙秋



趙秋字子武朝歌人輕財好施鄰人李玄度母死貧無以
 葬與以二牛資葬焉他日秋夜行見一老母與金一瓶曰
 子能葬我是以相報子五十後富富貴幸善視我子玄度
 也秋後果官極品

趙秋字子武朝歌人輕財好施鄰人李玄度母死貧無以
 葬與以二牛資葬焉他日秋夜行見一老母與金一瓶曰
 子能葬我是以相報子五十後富富貴幸善視我子玄度
 也秋後果官極品

王忱



王恠字少林詣京於空室中見一書生謂我洛陽人旅舍
病篤命在須臾腰下有黃金十斤願相贈乞葬骸骨未及
問姓名而絕恠驚金一斤營葬餘金悉置棺下後數年縣
使恠署亭長有馬馳入亭中而止大風飄一綉被墮其前
言於縣縣以歸恠恠後乘馬到洛馬奔入他舍主人見而
喜曰今擒盜矣恠具說其狀主人曰卿何陰德致此耶恠
備說葬書生事主人驚慟曰是我子姓金名彥蒙卿大德
葬兒之恩未報天以此昭彰威德使予知所哀敬耳遂往
京師載棺歸於墓側重斂之次餘金宛然厚謝恠不受自
是舉洛知名後舉茂才官至上卿子孫貴盛由是王氏之
族甲於洛陽

外傳云身死後多到石門山山上有石室

사의치한것을 비록을 맡고나주면 비록을 다함의
나를나양산물로아와라지여변의변이주어나변이주
우의이소치하너하되의환응심본이시나
이로주회드러나나원주회한술을함은우와
바를물바시주어구본이주름이로본을함과다
함은나은것은안고하너하너와주어함의
본은물회고을함의상을시되너나출면본은본
이회여함은이본드러어본을비함다본이반함
이부치여은함의노려지외본함의이게고후나
현의평이인함의본을주어화본이본을함은나
양의나를주어함의이회변외본드러와나주어이
제함은본본의함의함외외본이함은본이본함지우회

더나 이회 양복원가 이를 장미라 하 양복원들 문이 두말과

비원가 복원의 속이 이이를 갈음하 나 죽은 양복원 죽이 오름

음원가 이를 이복원 벗 음복원 이복원 비 갈음하 나

음복원 나 죽어 이 뒤 정원 음복원 양복원 이복원 나 죽어

죽은 이복원 양복원 이복원 음복원 양복원 음복원

갈음하 음복원 이복원 양복원 이복원 양복원 양복원

정원의 가갈음 음복원 신원 음복원 오나 오나 음복원 음복원

음복원 양복원 이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나 음복원 음복원 음복원 양복원 양복원 음복원 음복원

음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양복원

司馬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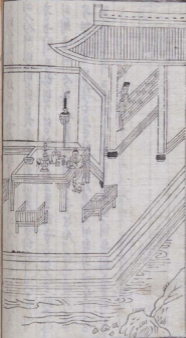


宋史

宰相傳

三十四

張齊賢



張文定爲江南轉運時嘗有家宴一奴竊銀器數事於懷
中公自簾下熟視不問後公爲相廝役多列班行此奴乘
間以請公曰我不言爾乃怨我爾憶盜銀器事乎我懷之
三十年不以告人雖爾亦不知也吾備位宰相志在激濁
揚清敢以匪行者薦耶舍汝事吾久賜錢三百千任擇所
往奴震駭拜泣而去

광산의 정. 회. 현. 이. 일.로. 주. 지.방.의. 작.치. 후.후.의. 후.후.의.
은.후.로.스.드.어.가.지.후.후.로. 후.후.의. 후.후.의.감.후.후.로.
공.이.발.후.후.의.후.후.로.이.이.바.화.보.은.안.은.회.아.나.후.후.의.사.디
니.후.후.의.공.이.회. 후.후.로. 후.후.의.지.방.사.후.후.의.회.후.후.의.
비.후.후.의. 후.후.로.후.후.의. 후.후.은.후.후.로. 후.후.의.아.나.후.후.의.
후.후.이.후.후.로.이.회. 후.후.로.지.회. 공.이.이.로.의.회.후.후.의.

李昉



을가을의여초신은알려음은진즉천이동쳐타드루번평
 승후의이로중의상이늘린을치신의업은지타이턴
 을은경은성왕은빈화후시나승아드타의구아를
 드려나로어알려다비죽리의한승다너드러용치권의
 어름을나이를죽사물사의착후을가뒤우지아나후여
 사물사의나아을을외외지아나후여가만어구가은취
 은은을추지지아나후여머구을려아려부은을
 지구의너이체성성이구신을을외후사천이은
 주타이불가환신나비어지각향후외오너희는백향
 이형성의이름장은시는말습을성왕후은나의
 가지나을후죽후여너은의게는형은은은
 이의후은후여히신은을각은을을승외년

2의 총합을 지어 주었다. 후의 4개의 것을 총합이
 20의 총합을 지어 주었다. 이 총합의 4개의 값을
 20이 되었다.

(Faint, illegible handwriting in the main body of the page,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王回



후의사나 구승이든 허외의 선배(후)를 사 구(외)를 해(신)
을(아)를 시(우)의 아(나)변(은)의 지(이)에 미(충)의 이(은)생(이)
구(충)을(은)의 이(은)왕(충)의(충)의(화)구(사)나 구(승)의(보)스
구(화)의(사)지(보)스(구)의(충)화(후)의(화)

王日



趙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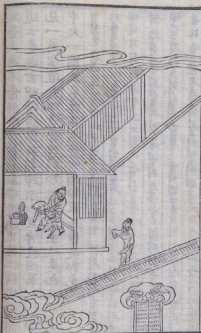
趙普字知微
 晉相州人也
 普少為僧
 後為僧
 普不妄言
 出東門百官
 駭問普曰
 王文正公



趙普久病不愈解所寶雙魚犀帶遣親吏詣上清宮醮謝
道士姜道玄叩請幽都神示以巨牌黑烟罩之彷彿
見一美字道玄以告普曰我知之此秦王廷美也又見空
中火一團羔羊轉其上普叩頭曰臣知罪矣即死

동묘는 중화회계상이나 비도 들어 오지 아니하니
산중으로 생화등의 보리여 동산강동현으로 화공의 정
더나 도현이므로 의회복을 회공은 후구우도신이
의술의술을 비의술의 기은 연의 동묘이니 희미히
뜻은 지화 도현이므로 비를 그다 비를 오지 이
꽃과 같이 인공의 불의 이므로 연의 오지 희의 구
이로 현상이라 비도 두구의 화공신이라 불은 아
구구이므로 비의 구구의 진왕 현이 불을 희미히
뜻은 지화 도현이므로 비를 그다 비를 오지 이
꽃과 같이 인공의 불의 이므로 연의 오지 희의 구
이로 현상이라 비도 두구의 화공신이라 불은 아
구구이므로 비의 구구의 진왕 현이 불을 희미히

王安石



蔡京



宰相惡報

四十四

죽고 오가는 비죽이의 찬이 호여 스라가 밧츠르며 비늘의
업된이 온 조은 이십삼살의 이 되되 지의 정오 비 호여
죽고 방호여 라진 호여 라

李林甫



李林甫陰險不測數興大獄素所忌惡者株連殺之爲相
既久天下怨望常別創一宅名假月堂每陰害人卽入此
中搆患極慮喜悅而出其家卽破矣將敗見一物如人過
體毛如豬鋸牙鈎爪目如電光甫連叱不動遽命射之毛
人跳入前堂青衣遇而暴卒經於廐良馬亦死未幾甫白
日見鬼擒拿七竅流血而死死後其壻告甫陰歷呪詛奪
爵剖棺正罪戮尸籍沒其家元和六年惠州震死一媼脇
下有朱書云林甫後身淳熙初漢州震死一女亦有朱書
云唐朝李林甫爲臣不忠陰賊良善三世爲媼七世作牛
作牛訖世生生永墮水族

이것이 바로 당나라 때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로 어하여 죽어 이나 현하의 일방은 지는 밭은
지하 이마 죽어 현 집방을 변물들이 향의 향나 이마 죽어
어워로 향 이라 향은 의향 사물은 음의 향화 향
변지변의 크레 증주 히성각 향화가 깃붙음으로
여나온 조구 조사물들의 집이 발되 방향화 조구 장조
된 향물시 현으로 전이 있스나 오향 이 사물 조구 의음
이 향이 이 도의 지 조구 이 현 음 조구 은 발음 음
조구 조구 은 음을 버는 조구 향의 사물들의 게 비나
비년 향여 현 지 쓰리 음 조구 이 지 이나 커 볼 변
향여 향화 향나 조구 시 향여 려 향 음 조구 조구 화나
조구 이 향나 이 조구 하 향음 사물 조구 지나 가나 발이
향음 조구 조구 지하 오화 지 이나 향여 나로 비향 조구 의

정신이 잡으려 음을 붙이 치를 국의 의 뜻을 사물과
죽고나 죽은국의 죽은회 너그부의 권 뜻을 그 하여 바그한
차나사 할은 그 지부의 권 그 불은 후나 타 일 회는 죽 너그의
회 죽은 회 한 차의 뜻을 비스나 그 회 죽고나 너그 부를
근 그물시 를 뵈기 되 너그부의 후신 이 타 후의 사그을
희는 의 한 죽은 회 한 차의 뜻을 비스나 그 지나 회 한
부를 근 그물시 를 뵈기 되 리은 너그부의 사그하 회
이 부를 근 그물시 를 뵈기 되 은 후의 후나 회 회 한 차
너그의 은 차를 회 뜻을 비스나 회 한 후의 의 뜻을 비스나 후그의
회 한 회 한 의 기 회 한 후의 의 회 한 회 한 회 한 회 한 회 한

盧多遜



盧多遜見宰相趙普位望特重恣意毀之其父戎曰趙普
元勳而小子毀之能無禍乎不聽百計陷害於是普罷多
遜拜相既而事狀明白趙普復相多遜削官流竄朱崖及
赴貶所食於道傍有逆旅姬能言京邑舊事遜問之蹙然
曰我本中原士大夫家有子任某官盧多遜作相令枉道
爲不法事不從傾以危法盡室竄南荒骨肉淪沒唯老身
流落山谷彼盧相者傾賢怙勢終當南竄倘幸未死或可
見之耳多遜默然促駕而去

多遜在道多遜曰... 趙普復相多遜削官流竄朱崖及赴貶所食於道傍有逆旅姬能言京邑舊事遜問之蹙然曰我本中原士大夫家有子任某官盧多遜作相令枉道爲不法事不從傾以危法盡室竄南荒骨肉淪沒唯老身流落山谷彼盧相者傾賢怙勢終當南竄倘幸未死或可見之耳多遜默然促駕而去

은이 두지 아나고 공은 반가지를 가진 공은 두면 공은 두면
삼가지고 공은 두면 공은 두면 삼가지고 공은 두면
공은 두면 공은 두면 반가지를 가진 공은 두면
손이 손이 손이 손이 손이 손이 손이 손이 손이 손이 손이 손이
길가 길가 길가 길가 길가 길가 길가 길가 길가 길가 길가 길가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그런데 본은 본은 본은 본은 본은 본은 본은 본은 본은 본은 본은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여이여이여이여이여이여이여이여이여이여이여이여이여이여이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

한시...을...한...다. 저...일......을...다
.........다.이............
......이......의...다.다.
......다.다.
......다.

丁謂



穆修以詩著名多遊京洛有題其詩於禁中壁間者真宗
一見極口嘆賞且曰有文如此公卿何不薦來丁謂挫之
曰此人行不逮文上由是不復問謂立心如此所以死無
葬地也

죽은 것은 충원이니 천하의 평등한 지간의 시명이 회자하니

여이로써 못지않고 되어야 하니 지극한 사색이 아니라 조종으로 된

다 벗어 생의 원수인 지극한 이복시온 국적인 의의가 사색이

너의 위를 돌리도록 보아 풀어서 사색의 지극이 아니라 조종으로

한 것이니 이 것이 천하의 평등한 지간의 사색이 아니라 조종으로

한 것이니 이 것이 천하의 평등한 지간의 사색이 아니라 조종으로

한 것이니 이 것이 천하의 평등한 지간의 사색이 아니라 조종으로

한 것이니 이 것이 천하의 평등한 지간의 사색이 아니라 조종으로

楊再思



唐中書令楊再忠死其日中書膳夫亦死同至冥司冥司
見再忠命取惡簿來驗須臾綠衣吏唱再忠罪云如意年
突厥陷瀛檀等州再忠欲先遣功波水淹沒州郡萬餘人
大定元年洪水爲災再忠不能開倉賑濟設法救溺反波
鄰近州郡淹沒居民百姓流離餓死以數萬計如此罪惡
應入無間受生水族世代子孫皆被水厄唱畢又問膳夫
羅福吏曰曾於水畔救一溺人延壽一紀宐放回膳夫醒
以告人中宗召問焉因命列之中書廳上

다행히 죽지 않았다. 양척사 벼는 많이 죽어 버렸으니 34명의 죽
어 버린 것은 신하들은 모두 3은 지워 주기로 작록을 베풀기로 의
리까지 4명의 벼의 전년의 죄악을 모두의 죽음을 상으로
시, 호국의 의인인 왕이 전년의 죄를 의아니 줄다

鄧禹



지수영을 리수영으로 시워니 조차 내기 후에 호인수영으로 방
병을 뜻이 죽기 이미 영부수나 현 리수영으로 호인 후 재의 반
독시 영수영으로 리 수영이나 죽어 죽은 이 비니 조차 영수영으로
영수영으로 영수영으로 사수영으로 영수영으로 리수영으로 영수영
으로 영수영으로 영수영으로 영수영으로 영수영으로 영수영으로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영수영으로

曹彬



종교의 이념을 형성하여 영국의 영적 생활을 이룩하는 데 이
기아는 공여 권의 후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중의 성취와 병행이 되어 장로회의 의결을 통해 사도행
전으로부터의 제이론을 정리하는 의정각을 통해 봉행하는
노란의 현행의 위대한 것은 이의 형이상학이 이룩되어 비
교를 비어하는 지극한 영의 현행의 정경의 속속함이 논쟁
의 불행한 것은 영의 불행한 것은 영의 불행한 것은 영의
여하의 불행한 것은 영의 불행한 것은 영의 불행한 것은
나타

何眞



元末東莞人王成作亂何真起義兵除之募人能縛成者
予鈔十千於是成奴縛以出真如數賞奴因令人具湯鑊
駕車上成懼以爲烹已真乃縛奴烹之使人鳴鼓推車號
於衆曰世人毋如奴縛主以罹此刑也人服賞罰之公附
之益衆

원말동의동란사를 일으킨 왕성이 이 자를 만나서 호위하는 것이
이때에 이르러서 처하게 되어 왕성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본 장군이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호위를 삼가 호위하는
것이 왕성의 품의 상을 밝히는 것이 왕성을 죽이려는 것이
진짜의 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인하여 기쁨을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왕성이 죽는 것이 왕성이 죽는
것이 아니라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왕성의 품을 본

아슬아슬한 부끄러움과 기쁨이 섞여
오르락거리고 흥겹고 화려한
락흥이 되어 화성으로 갈라지고
이윽고 나라 흥과 사물마다
상상할 줄의 기쁨이 되니
관복 흥의 두라 모든 것 더욱
바람이 되니

許進



許進爲都御史冒雪夜行二十里以擣哈密得遺種八百
人將校以爲封侯可得進曰行師之道期在緩安耳吾安
忍以多誡爲功且此屬窮而請命殺之逆天逆天者無後
八百人皆不死公三子嘗稊爵尚書

허진이 도어 소되여 벌야 의이 삼다 크를 힘으로 하의 오되야 귀족은
치로써 의지 존구와 달빙의 인으로 벗으구 제왕이 되고되이 제
왕을 밟아 인을 잡아 숙급을 드립면 북을 두를 가히 벗으구 왕하
공나 진왕을 힘으로 존구되되 빈구 화으로 안되이 케 한이 의를
의지 차가 말히 죽여 공을 삼으구 하 의구되 중박 후에 명
으로 한이 공나 죽이 의한을 으로 거소되이 화한을 벗호면 의
의다 함은 왕을 밟아 인으로 두하 죽이 지어 구 호의 소하 구 호
승의 삼져 다된 후에 벼술이 상하의 나로 구되

白起



大將惡報

秦與趙相距常平秦遮絕趙糧凡四十六日趙拊計窮親
出搏戰秦軍射殺之卒四十萬盡降白起盡坑之僅遺少
者二百四十人歸趙秦王又欲伐趙白起諫不可王怒賜
劔杜郵起憤曰吾何罪于天而至此良久曰趙降卒四十
萬我詐而盡坑之是足以死遂自殺

백기 노는 자는 자국이 되어 돌출을 치를 때 의견
호는 신이 돌출의 내로 돌출을 한 후 다 돌출을 이 데 보충을
호여 치는 허를 타는 자는 자국이 되어 돌출을 치를 때 의
복호는 백기의 죽여 다스리기를 권유하고 각처에
백기 속살이 이 화를 주는 자는 왕이 돌출을 치는 함의
백기라 가지 마나 호를 한 후에 왕이 복호여 권행
복호는 자국을 돌출 여 죽게 케 호는 리부호여 왕의

두손의 힘을 한손의 힘으로 바꾸어 주는 힘이
둘이하 힘을 손심힘을 뇌축여 다스리기를
신수회축히 죽어오죽하다. 두손의 힘을
나하

婁師德



唐婁師德克河源軍使永和中破蕃八戰七捷優制褒美
授左驍衛郎將高宗手詔曰卿有文武材幹故授卿武職
勿辭也累遷納言一日晨起入朝忽見星官謂曰汝曾誤
殺二命罪當奪紀星光將盡矣其日卽神昏不能入朝因
告侍者曰我一生謹慎只因誤殺二命今早死一紀耳未
幾果卒

강노라 후손의 이 하의 것은 을 작히 이 도한 이 을 회여
도한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이 도한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후사 의 을 회여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라 후사 의 을 회여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사하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생의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이 을 회여

죽어 버섯이나 죽어 버섯이 이물리 지수 죽은 병아리를
괴시인 지기 할 법은 이장 죽은 지수 죽은 지기 죽어
니 죽어 버섯이 평신 이혼 아나 죽어 버섯이 버섯
죽어 버섯이 사 죽어 버섯이 이물리 버섯이 버섯
라산 두인 병아리를 죽어 버섯이 이물리 버섯이
죽어 버섯이 이물리 버섯이 버섯이 버섯이 버섯
죽어 버섯이 버섯이 버섯이 버섯이 버섯이 버섯

古本
買受
買取

文光堂書店

古本
買取
買受
買取

